

# 한국 전투용 유니폼의 변천에 관한 연구

김정자

우송정보대학 교수

유니폼(Uniform)이란 단체나 기관의 구성원이 착용하는 일정한 모양과 색깔로 된 의복으로, 군복은 유니폼의 성격이 가장 현저하다. 전투용 유니폼은 戰鬪時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고, 정신무장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전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현대에 와서는 유니폼을 착용한 외모와 품위는 국가의 위상과 국제적 優位를 나타낸다.

고대 삼국시대에는 전투용 유니폼은 착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兵種와 직책에 따라 고유의 바지와 저고리 위에 갑주를 다르게 착용하였다. 고구려의 안악3호분벽화(A.D 357)에서 보이는 병사들의 행렬도에서 騎兵과 步兵 혹은 弓箭手, 槍手, 還刀手, 斧鉞手 등 계급의 輕重에 따라 완전무장을 하거나 부분갑옷, 혹은 바지와 저고리만 착용하였다.

통일신라시대(A.D676~935)와 고려시대(A.D918~1392)에 들어와서 군복은 최초로 유니폼의 개념으로 착용한 기록이 『삼국사기』와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다. 국토를 통일하고 國籍별로 병사를 통솔하고 전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대조직의 단위인 幢을 저고리 깃의 색으로 구별하였는데, 저고리의 깃을 두 단 혹은 세단으로 하고 紫, 緋, 綠, 靑, 黃, 赤, 碧, 黑, 白色,으로 다르게 사용하여 병사의 직책과 부대소속을 표시하였다.

조선시대(A.D 1392 ~1895)에도 『萬機要覽』에 바지와 저고리 위에 여러 색의 號衣를 유니폼으로 착용한 기록이 있다. 호의는 方位에 따라 東은 靑色, 西는 白色, 中央은 黃色, 南은 紅色, 北은 黑色으로 다르게 부대소속을 표시하였다.

근세(A.D 1895~1945)에 들어서면서 유니폼 개념은 국내외의 정치외교와 군사제도를 나타내는 개념을 갖는다.

조선은 開港과 더불어 국정을 개혁하기 위해 일

본의 군사제도로 개혁하면서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고 전통적인 바지와 저고리를 개량한 초록색의 유니폼을 1881년부터 1884년까지 착용하였다. 그러나 신식군대에 대한 구식군대의 불만으로 일부 군대는 淸의 군사제도로 개편하면서 淸의 전통적인 靑色 유니폼을 1882년부터 1884년까지 착용하였다. 그 후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게 되면서 일본의 服制에 따라 처음으로 서양식 유니폼을 1895년부터 1896년까지 착용하였다. 즉 부드러운 인상을 주는 프랑스식의 Dolman과 강한 인상을 주는 독일식 Tunique을 차례로 착용하였다. 다시 高宗이 제3세력인 러시아를 끌어들이면서 러시아의 유니폼인 Dolman을 채택하여 1896년부터 1899년까지 착용하였는데, 무궁화 모양의 매듭을 양 가슴과 袖章에 부착하는 등 러시아의 유니폼과는 조금 다르게 하여 자주성을 나타내었다. 그 후 러시아와 일본의 상호세력이 균등한 1899년부터 1904년까지 조선은 무궁화 모양의 단추 등 전통적인 장식을 가미한 Tunique을 유니폼으로 착용하였다. 1904년부터 1946년까지 일본이 로일전쟁에서 승리하고 강제로 원사부가 폐지되면서 다시 일본의 服制에 따라 카키색과 암갈색의 유니폼을 차례로 착용하였다. 그러나 일본이 패망하자 조선은 韓美修交를 맺고 국방경비대를 창설하고 미국식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미국의 군사제도를 채택하고 1945년부터 국방색 미국의 유니폼을 착용하였다. 1954년 이후 大統領令과 閣令에 의해 한국인의 체형, 기능성, 位相 등을 고려하여 여러 차례 수정과 개정을 걸쳐 여러 형태의 국방색 유니폼을 착용하다가 현재는 한국의 지질학적 환경에 맞는 얼룩무늬의 유니폼을 채택하여 착용하고 있다.

미래의 전투용 유니폼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偽裝과 衛生 대한 방어용 유니폼을 착용하게 될 것이다.